

이야기 카드 1

눈앞에서 놓친 버스

채원이는 아침에 빵을 입에 문 채 정류장까지 뛰었다. 도착하는 순간 버스 문이 닫히고 떠났다. 다음 버스는 15분 뒤였다. 채원이는 "아, 짜증나!"라고 말했다.



이야기 카드 2

같이 남게 된 모둠

건우는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다. 그런데 모둠 친구 두 명이 맡은 부분을 안 해 와서, 선생님이 모둠 전체에게 방과 후에 남으라고 했다. 건우는 "진짜 짜증나."라고 중얼거렸다.



이야기 카드 3

나만 빠진 주말 약속

쉬는 시간, 다인이는 친한 친구 셋이 주말에 같이 놀러 간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. 다인이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. 집에 와서 다인이는 "아, 짜증나."라고만 했다.